

**말끝이 당신이다**

**: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말의 감수성 / 10월 27일(목) 15:00~18:00**

- 최근 노동 영역에서는 '일터 괴롭힘(직장내 괴롭힘)'의 문제를 판단하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는 '평등한 노동환경과 문화'에 대한 고민을 함께 수반하기도 합니다.
- 일터 괴롭힘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, 무엇보다 일터 내 '평등한 말하기'의 부재, 즉 힘의 차이를 뛰어넘는 평등한 말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우리의 일터에서 평등한 말하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? 더불어 주변을 보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하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?
- 이를 탐색하기 위해 '말과 언어'의 속성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, 이에 근거한 '언어 민주주의'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합니다. 무엇보다 일터에서 말의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질문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

**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**

**: 노동환경에서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길러지는가? / 11월 4일(금) 15:00~18:00**

-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촛불을 통해 정치 지형을 바꿨던 고도의 정치 민주화 사회로 표명되지만, 여전히 우리의 일터를 포함한 사회·경제·문화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.
- 이렇듯 한국사회의 '광장의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의 괴리'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'문화 지체 현상'에 대한 원인 탐색 및 일터 민주주의와 관련한 화두를 던지고자 합니다.
- 더불어 일터 민주주의와 관련한 대안적인 선사례를 통해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 및 민주주의적인 노동환경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